

# “낮선 전화 한 통, 평온한 일상 무너뜨린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1>광주·전남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가 해마다 진화하며 광주·전남 지역사회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학교와 관공서, 공기업까지 사칭하는 수법이 확산하며 피해 대상과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특정 유명인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음식, 제품을 단체주문한 뒤 연락을 끊거나 대리구매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노쇼사기’가 극에 달하면서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피해 이후의 대응과 제도적 보호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태와 심각성,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이중고, 제도의 한계와 개선 과제를 등을 차례로 짚어본다.

연초부터 광주·전남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겨울방학을 맞아 학교 공사와 관련된 물품 구매, 관급 계약이 늘어나는 시기를 노린 학교·관공서 관계자 사칭 범죄가 잇따르면서 수천만원대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대출 사기나 금융기관 사칭을 넘어 공공기관과 교육 현장을 정조준한 범죄가 확산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한층 조직화·고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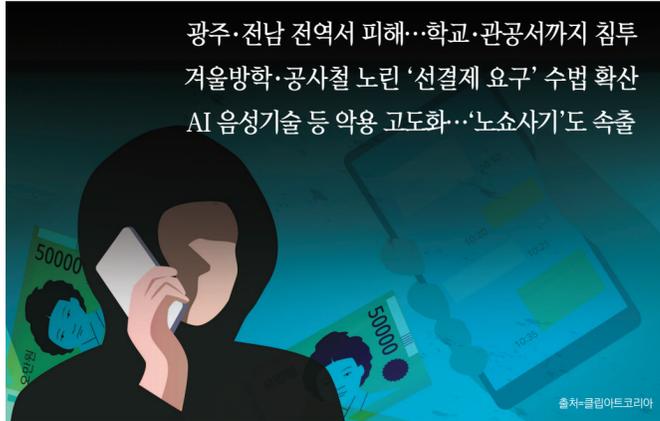
2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전남 나주의 한 고등학교 관계자를 사칭한 인물이 지역 건설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안전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6000만원을 요구했다.

해당 업체는 과거 이 학교의 재난 피해 보강공사를 맡았던 이력이 있어 별다른 의심 없이 범인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후 학교 측에 입금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드러났다.

같은 날 오전에도 지역 교육업체 대표가 고등학교 교직원들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공기청정기 대금 송금을 요구받았다. 이 업체는 즉시 학교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추가 피해를 막았지만, 학교 공사와 물품 구매가 잦은 방학 기간을 노린 범죄 수법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 같은 범죄는 학교에 국한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관공서와 공기업을 사칭한 계약·물품 대금 사기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을 사칭한 일당은 가짜 명함과 이메일을 제시하며 물품 납품 계약을 벌이



로 1000만원 상당의 검수용 기념물품 제공을 요구했다. 과거 유사 사례를 경험했던 해당 업체는 명함과 이메일 주소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공사 측에 문의해 피해를 면했다.

항만공사 사칭 범죄는 지난 2025년 10월에도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공사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 계약이나 금전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공식 창구를 통해 확인해 달라”는 안내문을 배포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범죄 조직은 이를 비웃듯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여수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2025 불꽃축제 설문조사 유료’라는 제목의 허위 공문이 지역 업체들에 발송됐다.

해당 공문에는 불꽃축제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에게 제공할 유료 구입 예산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부서명과 결제 라인, 담당자 직함은 물론 여수시장 직인까지 정교하게 위조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한 업체는 시에서 축제에 쓸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속아 음료수 구매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범죄조직이 예산 처리를 약속한 뒤 대리 구매를 요청해 돈을 보내면 가로챌 것으로 판단. 해당 위조공문서를 공개해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6월과 8월에는 광양시청 회계과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의 물품 대납 요청에 속아 5500만원 상당의 결제 피해를 입은 지역 스포츠용품 업체 사례도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 사건 모두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원에서 290억원으로 88억원이 증가했다.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의 연령대와 직군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 사칭 범죄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학교·관공서·공기업과 실제 거래 이력이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표들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비교적 자산 규모가 크고 정보기술 기반 범죄에 취약한 점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범죄 수법의 진화도 심각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전화뿐 아니라 문자,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은 물론 인공지능(AI) 음성 기술까지 활용하며 범죄를 고도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상급자나 기관 관계자의 목소리를 흉내 낸 AI 음성을 이용해 신뢰를 유도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급기야 보이스피싱에 허위 전화주문(노쇼)을 결합한 이른바 ‘노쇼 사기’ 범죄도 속출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을 사칭해 업체에 대량 주문이나 예약을 한 뒤 대리구매를 유도해 돈을 송금받고 잠적하는 수법이다.

실제로 지난 2025년 1~7월 광주·전남지역에서 총 322건(광주 195건·전남 13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55억여원(광주 36억9690만원·전남 1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상 깊숙이 파고들면서 이제 문제는 ‘누가 당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노출되느냐’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속출함에 따라 광주경찰청은 2025년 9월부터 스마트폰 기반 피싱·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피싱수사계’를 운용, 범죄 척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감 관계자는 “학교나 관공서를 사칭해 선결제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보이스피싱으로 봐도 무방하다”면서 “공식 대표번호 확인, 기관 직접 문의 등 기본적인 확인 절차가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    |       |    |       |
|----|-------|----|-------|
| 맑음 | 07:09 | 달림 | 10:45 |
| 맑음 | 18:26 | 달림 | 09:49 |



|     |     |
|-----|-----|
| 광주  | 1~7 |
| 목포  | 1~6 |
| 여수  | 4~7 |
| 순천  | 1~8 |
| 구례  | 0~8 |
| 광주  | 0~7 |
| 신도  | 3~7 |
| 흑산도 | 3~6 |
| 고흥  | 0~8 |
| 진남  | 1~6 |

|    |       |               |
|----|-------|---------------|
| 목포 | 밀물(고) | 06:57 / 18:53 |
|    | 썰물(저) | 11:58 / --:-- |
| 여수 | 밀물(고) | 01:27 / 13:16 |
|    | 썰물(저) | 07:21 / 19:42 |

## 공업사 차량 절도 쇠고랑

마네편 ○·생활고를 이  
유로 자동차 공업사  
에 맡겨진 차량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

23일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A씨(20대)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광주 남구 송하동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2200만원 상당의 SUV를 출근 현의(절도)를 받아, A씨는 차주가 수리를 위해 공업사에 맡겨져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해 차량 내부에 들어간 뒤 그대로 몰고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지난 20일 전남 영암에서 A씨를 검거.

조사 결과 A씨가 차량 3대를 추가로 훔친 정황도 확인됐으며, 경찰은 길가에 세워져 있던 해당 차량들을 모두 회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송태영 기자 sty1235@

## 고려인 강제이주 역사·홍범도 장군 초상 ‘한자리’

광주고려인마을 ‘문빅토르 화백 전시실’ 내달 1일 개관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홍범도 장군과 고려인의 삶을 재해석한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마련된다.

광주고려인마을은 107주년 3·1절에 맞춰 세계적 고려인 미술거장 문빅토르 화백의 전시실을 개관한다고 23일 밝혔다.

1951년 고려인 강제이주의 첫 도착지였던 카자흐스탄 우슈투베에서 태어난 문 화백은 알마티 미술대학을 졸업한 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문 화백은 일제강점기 연해주 이주와 1937년 중앙아시아 강제이주라는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그리는 작가로, 대표작은

1937 고려인 강제이주열차, 우수리스크나의 할아버지, 홍범도 장군 등이다.

2023년 12월 광주고려인마을에 정착한 문 화백은 이듬해 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 2층에 작은 작업실과 전시실을 마련했다. 이후 관광객과 연구자, 예술가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공간은 작품 수와 관람객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협소했다.

이 소식을 들은 광산구는 산정동 한 공간을 마련했다. 광주고려인마을은 3월 1일 전시실을 개관할 예정이다. 홍범도 장군 초상을 비롯해 고려인의 삶을 재해석한 작품 50여점이 전시된다. 송태영 기자



“졸업이다!” 23일 오전 나주 동신대학교에서 열린 제36회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동신대학교 캐릭터 동렬이, 숲산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풍요·안녕 기원’ 제43회 고싸움놀이 축제 열린다



지난해 열린 고싸움놀이축제 모습.

광주 남구가 전통 민속놀이인 고싸움놀이로 주민 화합을 다진다.

남구는 오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칠석동 고싸움놀이테마공원 일원에서 제43회 고싸움놀이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주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문화 보존 필요성, 가치 확신을 위해 기획됐다.

축제를 주관하는 고싸움놀이보존회와 남구는 ‘옷돌 달빛 속에 세계와 하나되

다’라는 주제로 축제 첫날부터 흥겨운 무대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축제 첫 날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되는 제1회 옷돌 가족 전래놀이에는 출라우프통과, 투호 던지기, 판 자치기, 코끼리 코 세바퀴 후 징 치기, 망기 딸기 등 다양한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둘째 날인 3월 1일은 개막식에 앞서 남사당놀이, 흥춤, 해금·대금 연주단, 어린이 판소리 등이 축제의 흥을 돋운다.

이날 오후 6시부터는 축제 하이라이트인 개막식 행사가 성대하게 열린다. 이와 함께 달집태우기, 고싸움놀이, 칠석농악단 판곡, 불꽃놀이도 연이어 펼쳐진다.

마지막 날인 3월 2일에는 오전 11시부터 경기민요와 북청사자놀이·진도북춤·줄타기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지며, 오후에는 단상줄 대동놀이를 통해 공동체의 연대감을 나눈다.

이밖에 축제 기간 행사장 주변에서는 대보름 음식, 지게 매기, 딱지 치기, 옷놀이 등 전통 민속을 체험하는 부스도 마련된다.

남구 관계자는 “1983년부터 고싸움놀이 축제가 매년 개최되면서 광주 대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며 “고싸움놀이의 발전인 힘서 옷돌마을에서 진취적 기상과 강한 패기를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 28~3월 2일 광주 남구 칠석동 테마공원

달집 태우기·풍물놀이 등 프로그램 다채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

26일 동구 ACC서 열린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가 광주 동구에서 열린다.

23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3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국제회의실에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공동회장단 회의에는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대구 남구 청장), 강기정 광주시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광주 협의회장), 김성 정흥군수(전남 협의회장),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개회식, 제10회 지방자치대상 시상식, 본회의, ACC투어, 만찬 순으로 진행된다.

본회의에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심의안건 의결을 비롯해 협의회 주요 현안 및 성과 보고를 공유한다.

한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8개 시·군·구의 발전과 자치분권 확대, 지방 공동의 문제 해결과 지역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228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1999년에 설립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